



2026년 5월호

## 굳이굳이 계곡 끝 굳이 장파마을

절어가는 녹음이 굳이굳이 계곡을 따라 마을을 감싸는 5월, 장파마을 깊숙이 들어서자 사람 사는 소리가 들려왔다. 허리 숙여 풀을 뽑고 밭을 가꾸는 손길, 들독에 담긴 옛 청춘의 이야기, 맑은 계곡물에 하얀 달을 닮아 팔리던 창조지 공장의 기억까지 두루 담았다. 관련 기사 2-7면

사진설명: 주민들이 장파마을 모정에 모여 앉아 웃고 있다.

● 완주동학농민혁명 최후 항진지를 찾아 8P ● 삶의 풍경 화산 노동권 이야기 10P

● 꿈의 무용단&꿈의 극단 "올해도 출발" 12P ● 수리수리 짐수리봉사단 16P



# 탁, 탁! 계곡마다 닥돌 두드리며 부지런히 한지를 땀지

휘돌아 마을 한 바퀴

구이면 소재지에서 15분가량 더 달려 대덕마을과 계곡마을을 지나, 다리 하나를 건너야 비로소 장파마을에 다다를 수 있다. 옛 절 장파사의 이름을 딴 마을 지명처럼 장파마을은 고요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쳤다. 전보다 길이 넓어졌다지만 울창한 산에 둘러싸인 아늑함만큼은 여전해서 야기자기한 꽃나무와 가로수 사이로 들려오는 새소리가 유독 크게 공명을 일으키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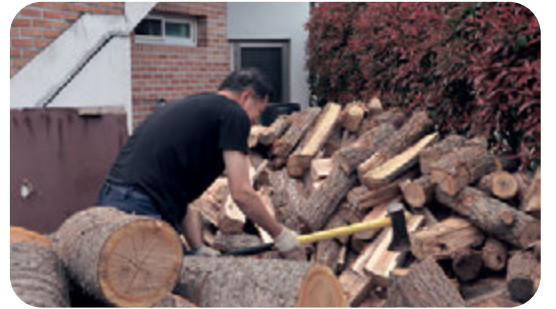
## 봄바람 맞으며 땅을 깨우는 사람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허리 숙여 잡초를 뽑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보였다. “입구의 풍경이 마을의 얼굴”이라며 도랑 옆 둔덕에 무성한 풀을 뽑고, 꽃나무 묘목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을 덮고 있었다. 노랫말을 흥얼거리며 낫을 휘두르는데도 도라지, 박하, 냉이 등 식용 식물만 귀신같이 피하는 숨씨가 예사롭

지 않다.

한쪽에서는 묵직한 도끼날이 장작을 가르며 소리가 마을의 정적을 깬다. 외지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하길수 씨다. 내년 겨울 땀감을 미리 준비하느라 구슬땀을 흘리는 그는 “이 시기엔 땀감도 해두고 고추랑 감자도 심어야 해서 손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며 웃어 보였다. 옆 밭에서는 최인중 어르신이 풀악이 담긴 통을 등에 지고 옥수수와 콩밭으로 밭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노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지.”라는 어르신의 투박한 한마디에는 평생 쉬지 않고 땅을 일궈온 농부의 부지런함이 배어 있다.

임순태 이장은 마을 정자 옆 90kg에 달하는 ‘들독’을 가리키며 옛 추억을 꺼내놓았다. “모심기가 끝나면 술메기를 했는데, 그때 젊은이들이 들독을 번쩍 들어올려야 비로소 성인 대접인



위부터\_술메기에서 마을 젊은이들이 들었다는 들독  
공밭에 풀약을 주러 가는 최인중 어르신  
딸감 준비 중인 하길수 씨  
농촌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

‘원뿔(일대일 품앗이)’을 받을 수 있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 지네명당의 정기와 사라진 장파 지소

마을 안쪽으로 깊숙이 발걸음을 옮기면 전의이씨 문중의 역사가 깃든 ‘원모재’와 묘역이 나타난다. 묘역산 줄기가 내려와 맺힌 이곳은 풍수 지리상 지네가 머리를 치켜들고 하늘로 오르는 ‘오공비천형(蜈蚣飛天形)’ 명당으로 이름나 있다. 지네의 다리만큼 자손이 번성하고 재물이 모인다는 길지답게 실제 전의이씨 문중에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어 풍수를 공부하는 학자들의 발길이 지금도 이어진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곳의 지리적 혜택이 땅의 기운에만 머물지 않는 것 같다. 산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계곡물, 지하에서 샘 솟는 지하수가 예로부터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

한 곳이라 한지(창호지)를 만드는 장파 지소가 있었다고 한다. 전의이씨 재실 뒤편 방죽 위쪽에 1960년대 중반까지 전주에서도 알아주던 한지 공장이 있었다. 그곳의 외동딸이었던 백봉덕 어르신은 “집마다 다나무를 많이 길렀어. 근데 만들어야 할 종이 많았는데, 마을에서 나는 닥으로는 부족해서 임실 것까지 가져다 썼지.”라며 당시 번성했던 공장 풍경을 떠올렸다.

계곡 바위에 하얀 닥을 널어 말리던 풍경은 이제 옛이야기로 남았지만, 맑은 물과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질 좋은 종이를 띄우던 마을의 자부심은 주민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선명하다.

###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

최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한 ‘농촌사회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완주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이 추

진하는 찾아가는 교육·문화·돌봄 프로그램으로, 총 4회차에 걸쳐 예방교육과 체험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진행된 3차시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푸드테라피가 진행됐으며 사례 중심 교육에 이어 호두피칸파이 만들기 체험이 이어졌다. 4차시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아로마테라피 체험이 진행됐다.

백봉덕 어르신은 “직접 와서 알려주니 이해가 잘 되고 도움이 됐다”며 “함께 만들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함임 어르신은 “보이스피싱 같은 건 막연히 무서웠는데 자세히 알려줘서 많이 배웠다”며 “처음 해본 아로마 만들기도 기분이 좋았다”고 전했다.

이난옥 부녀회장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 배우고 체험하니 반응이 좋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백봉덕 어르신

## 창호지처럼 켜켜이 쌓인 84년 돌아보니 전부 추억

장파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백봉덕(84) 어르신의 이야기는 마을의 역사와도 닮아있다. 지금은 조용한 농촌이지만 그의 어린 시절 이곳은 창호지를 만들던 공장이 있던 곳이었다. 어르신은 그 공장의 외동딸로 자라며 비교적 넉넉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당시 장파마을은 맑은 계곡물과 지하수 덕분에 창호지를 만들기 좋은 환경이었고, 어르신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문창호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다. 닳나무로 만든 창호지는 전주로 나가 값이 좋게 팔린 덕분에 집안 형편도 안정적이었다. 어르신은 “열여덟 살까지는 세상 어려운 줄 몰랐다”고 회상할 만큼 고생과는 거리가 먼 어린 시절을 보냈다. 기억 속에는 늘 분주한 공장의 풍경이 남아 있다. 오빠들은 아버지를 도와 닳껍질을 삶고 두드리는 일을 맡았고, 봉덕 어르신은 어머니가 준비한 반찬을 들고 공장으로 오가는 심부름을 했다. 직접 창호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집과 공장을 오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제작 과정을 눈에 담았더니,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과정을 줄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다.

“닳나무를 썬서 껍질을 벗겨낸 다음, 널찍한 닳돌 위에 올려놓고 나무 방망이로 하염없이 두들겨야 해. 그래야 보들보들하게 섬유가 풀리거든. 그걸 맑은 물에 넣고 닳풀이랑 섞어서 한지발로 찰랑찰랑 흔들어 뜨면 껍질이 쌓인 종이 가 만들어져. 물기를 짰고 뜨거운 방바닥에 한 장씩 붙여 말리면 창호지가 되는 거지.”

열아홉에 이웃 총각과 결혼하며 시작된 삶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한때 남편의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아 서울로 올라가 살던 시절 고생도 많이 했다. 우여곡절 끝에 남편이 원예원에서 일하며 기술을 익히자 상황은 점차 나아졌다. 이후 부부는 도시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고향인 장파마을에 정착해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세월이 흐른 지금 백봉덕 어르신 부부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2년 전에는 KBS ‘우리 집 금송아지’에 출연해 대대로 간직해온 떡살과 다식들로 주목받기도 했다. 봉덕 어르신은 “금송아지 탄 기념으로 사비 들여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 한턱냈다”고 웃었다.

창호지 공장의 외동딸로 자라 고생을 모르던 시절, 결혼 후 겪은 굴곡, 그리고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의 삶까지 백봉덕 어르신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담담하고도 유쾌하게 풀어냈다. 힘들었던 순간조차 크게 부풀리지 않고 웃으며 되짚는 태도에는 오랜 시간 삶을 버텨온 사람만의 단단함이 있다. ❷



70여 년 전 한지 만들던 기억을 줄줄 설명하는 백봉덕 어르신



뒷마당 한켠에 아직 남아있는 닳나무



닥을 펼쳐서 말리던 닳돌

## 최함임 어르신

## 밭 매고 복실이와 놀아주면 하루가 가지

마을회관 앞 작은 밭 앞에 허리를 굽힌 채 풀을 뽑는 손길이 분주하다. 이름 모를 잡초가 빼곡히 올라온 밭 사이로 어르신 손이 쉬 없이 오간다. “약을 안 치니깐 잡초랑 전쟁이여.” 한마디에 밭일의 고됨이 묻어난다. 최함임(76) 어르신이 밭을 돌본 지도 벌써 2년째다. 집을 지키는 강아지 ‘복실이’와 함께 하루를 보낸다. 복실이가 있어 집도 마음도 한결 든든하다고 한다. 아침이면 밭으로 나와 풀을 뽑고 거름을 주고, 때로는 퇴비를 사다 뿌리며 땅을 일군다.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더 적적해. 이렇게 나와서 풀도 뽑고 흙 만지고 있으면 하루가 금방 가버려.”

김제에서 시집와 열아홉 어린 나이에 농사를 시작했다. 벼농사를 지으며 자식 넷을 키웠다. 젊은 시절에는 공사장 인부들의 밥을 해주고, 한의원 식사까지 도맡아 하며 바쁘게 살았다.

“그때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

지금도 밭일은 어르신의 일상이다. 오늘은 오이를 심으러 나왔다가 풀이 더 많아 보여 결국 풀부터 뽑았다. 전날에는 썩을 뜯어와 삶아 떡을 해 먹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어르신에게 또 다른 즐거움은 가족이다.

지금은 아들 둘, 딸 둘 모두 제각기 자리를 잡았고 자식들은 전주 인근에 살아 자주 들른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 보니 그게 좋지. 주말에는 막내딸이랑 같이 교회도 가고 그래.” 짧은 말 속에 웃음이 묻어난다.

밭 한쪽에는 꽃도 자리 잡고 있다. 꽃을 좋아해 이것저것 심어두었고 철쭉도 심어 정성껏 가꾸고 있다. 질경이 같은 들풀도 그냥 두지 않고 손수 돌본다.

“꽃이 있어야 보기도 좋고 마음도 편하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씩 쳐다보고 그러는 게 다 낙이여.” 오늘도 어르신은 밭에서 하루를 보낸다. 풀을 뽑고, 흙을 만지고, 계절을 따라 살아간다.



밭일을 마치고 복실이와 눈을 마주치며 놀아주는 최함임 어르신

## 시절 다 지나도록 여전한 고사리 반찬, 소 울음소리

## 김금순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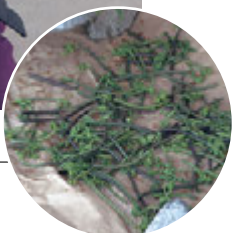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 울음소리에 자연스럽게 밭 걸음이 멈춘 곳, 소를 여럿 키우는 축사가 있는 집 앞마당에서 김금순(90) 어르신을 만났다. 어르신은 마당 한켠 숲에서 고사리를 삶고 있었다. 끓는 물에 삶아낸 고사리는 찬물에 여러 번 세척 후 햇볕에 바짝 말려야 비로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나물이 된다. 말린 고사리는 일 년 내내

밭상에 오르는 귀한 반찬이자 마을의 계절을 기억하게 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열일곱에 인근 용호리에서 시집와 평생 농사일을 해왔다는 어르신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집이 소를 키우던 시절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는 소에 맞춰 쓰던 농기구들이 따로 있었지. 쟁기질이랑 썰이질을 해야 논밭이 평평해져. 땅을 다 골라야 줄 잡고 손모내기를 했어. 손발 맞춰서 손모내기 하는 동안 근처에서 풍장 치던 가락이 아직도 생각나네.”

지금 어르신은 둘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집 옆 축사에는 남편이 키우던 소들을 이어받은 셋째 아들이 매일 전주에서 오가며 돌보고 있다. 예전만큼 소를 키우는 집은 줄었지만 이 집 마당에서는 여전히 그 풍경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 ☺



## 마을 어귀 팽나무같이 묵묵히 마을을 지켜온 사람

### 임순태 이장

고향 금산을 떠나 1960년대 장파마을에 뿌리 내린 지도 어느덧 예순 해가 가까워졌다. 임순태(82) 이장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곳 풍경을 묵묵히 지켜봐 왔다.

#### 간단한 마을 소개

장파마을은 과거 고려시대부터 주변에 큰 절과 스님들이 많아서 '절골'이라 불리기도 했다. 마을 이름 또한 옛 장파사에서 유래했다. 현재 마을에는 주민등록상 70여 가구가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상주하며 생활하는 가구는 30여 가구이다.

#### 마을의 자랑거리

우리 마을은 풍수지리상 '지네명당'으로 알려져 학자와 학생들이 찾아올 만큼 기운이 좋다. 특산품인 멜라초는 원래 겨울철 눈 덮인 산에서 자라는 약초인데, 혈액순환에 좋고 특히 잠이 안 오는 분들에게 효능이 탁월하다. 쓴맛이 강해 이를 정도 물에 담가 독성을 뺀 뒤 나물로 무쳐 먹으며, 현재는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할 정도로 우리 마을의 귀한 겨울 보약이다.

####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감

벌써 이장직을 맡은 지 5년째가 되었고, 내년까지 하면 총 6년의 임기를 채우게 된다.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해서 건강하게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앞으로 바라는 점은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활기가 돌고, 지금처럼 주민들이 화합하며 정답게 살아가면 좋겠다.



텃밭에서 재배 중인 멜라초와 여물고 있는 멜라초 씨앗

### 김한철 노인회장


## 이웃들 얼굴 보는 게 내 보약

1980년대 새마을 지도자를 시작으로 이장직을 역임했고, 지금은 노인회장 2기 연임 중인 김한철 어르신은 몸은 예전 같지 않다 말하면서도 마을 일이라면 여전히 가장 먼저 마음이 움직인다. 요즘 같은 시기는 본래 한철 어르신에게 가장 바쁜 계절이다. 고사리와 두릅이 올라오는 수확철이기 때문이다. 예년 같으면 산을 오르내리며 직접 나물을 거두고, 수확한 두릅을 서울로 보내거나 로컬푸드 매장에 내놓느라 분주했을 터다. "이맘때면 산에 있어야 하는데, 올해는 좀 쉬어야지. 얼마 전에 넘어졌는데 손을 다쳐서 어쩔 수가 없네." 비록 손은 쉬고 있지만 그의 발걸음까지 멈춘 것은 아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인일자리사업 모니터링을 맡아 구이면 곳곳을 오가고 있다. 안덕리와 개곡리, 백계리까지 이어지는 길은 왕복

10km가 넘지만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길을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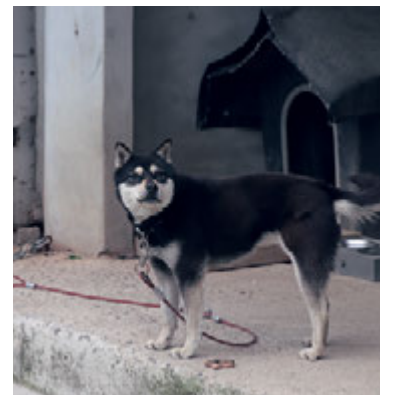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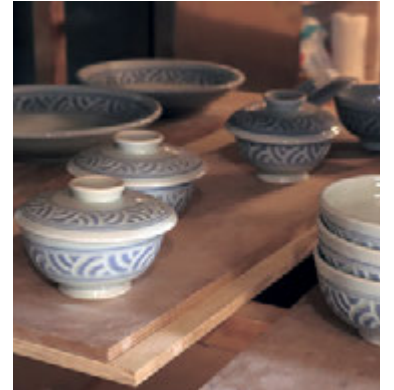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자주 얼굴 보기 힘든 이웃들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너무 자주 가면 또 반가운 맛이 없고, 이틀에 한 번씩 얼굴 보면 그게 그렇게 재밌어."

짧은 안부 인사와 차 한 잔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들. 그 소소한 만남이 하루를 채우는 가장 큰 기쁨이다. 때로는 이동이 힘들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일도 즐기고 몸도 챙겨야 할 나이긴 한데,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 사는 얘기 듣는 게 제일 좋지. 장단점 없는 일이 어디 있어. 그저 웃으며 지내는 게 남는 거지." 



마을회관 앞에서 손을 흔드는 김한철 노인회장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 늘 웃음을 달고 사는 이난옥 부녀회장. 짬내 들른 집 근처 한 도예가의 작업실, 든든한 반려견 루

### 이난옥 부녀회장

##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을 줄

녹음이 짙어가는 5월의 장파마을을 거닐다 이난옥(69) 부녀회장을 만났다. 마을 어르신들에겐 든든한 딸 같고, 근방에 모여 사는 귀촌인과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인싸’라는 별명에 걸맞게 난옥 씨는 환한 얼굴로 객을 이끌며 마을 구경을 시켜주었다.

난옥 씨가 장파마을에 자리 잡게 된 계기는 조금 특별하다. 20여 년 전, 우연히 안덕마을을 찾았던 일이 시작이었다. 그곳에서 일한다는 지인의 권유로 한증막에 들렀다가 마신 공기 한 모금, 창밖의 녹음 우거진 풍경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안덕마을과 인연을 맺은 뒤, 바로 아래에 있는 장파마을에 빈집을 찾아 지금의 터전을 꾸렸다.

“지금 집이 산 바로 아랫집이라 다들 혼자서 거


기 어떻게 사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이 집을 딱 본 순간 ‘여기가 아니면 안되겠구나’ 싶더라고. 그날 밤 자기 전에 ‘하느님 내가 겁 먹는 일이 없도록, 아무 일도 없도록 해주세요.’라고 빌었는데, 정말로 아무 일도 없이 너무나 개운하게 잘 잔 거예요.”

전주에 살던 시절엔 늘 몸이 좋지 않아 약을 달고 살았지만, 이곳에 정착한 뒤로는 거짓말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몸이 가벼워지자 삶의 방향도 달라졌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무언가를 나누는 일이 무엇보다 즐거워졌다.

3년째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누구보다 먼저 챙긴다. 반찬 나눔 봉사가 있는 날이면 재료 준비부터 조리까지도 맡고, 마을 행사가 열리면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을 지킨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의 표정이

늘 밝은 이유는 분명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기 때문이다. 구이면 새마을부녀회 임원이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회의와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는데, 틈틈이 배움의 시간도 놓치지 않는다. 특히 난타와 고고장구 같은 활동은 난옥 씨에게 활력을 더해주는 소중한 취미다.

가끔은 이웃들과 즉석에서 음식을 나누며 보내는 소소한 시간도 빼놓을 수 없다. 닭을 삶고, 떡볶이를 나누고, 기타 소리에 맞춰 웃음이 오가는 풍경. 그 속에서 난옥 씨는 오늘도 사람들과 함께 사는 기쁨을 쌓아간다.

“첫눈에 반한 이곳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은 여기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오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운주지회 강순후 지회장과 일행들이 대둔산 최후 항전지에서 막걸리와 과일로 간단한 제수를 차리고 위령제를 지냈다. 강 지회장이 당시 희생된 25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고 있다.

###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 항전지



동학농민혁명은 1984년 일어난 반제국·반봉건 근대화운동이다.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 항전지 석두골 일대는 1895년 2월 18일 동학농민군 25명이 끝까지 싸우다 죽음을 맞은 곳이다. 이때 동학접주 김석순(金石醇)이 한 살쥔 된 여아를 품에 안고 150m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결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지난 2015년 12월 전라북도기념물 제131호로 지정됐다.



###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운주지회, 대둔산 최후 항전지를 가다

## “반제국-반봉건 맞선 농민군의 처절했던 외침 들리는 듯”

4월 26일 오전 9시. 대둔산호텔 뒤 음식점 산산산(山山山)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지난 17일 발대식을 마친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운주지회 강순후 지회장과 지역 사람들이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최후 항전지로 알려진 석두골(798m) 일대를 답사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1895년 2월 18일 동학농민군 지도자급 25명이 이곳 석두골 일대에서 항전하다 장렬한 죽음을 맞았다. 강 지회장은 “우리 고장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최후 항전지를 알리고 그 정신이 후대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둔산산악구조대원인 이왕영 완주산내들희망캠프 대표가 길잡이를 맡았다. 그의 안내에 따라 일행은 간단한 준비운동을 마친 뒤 답사에 나섰다.

최후 항전지로 향하는 산길은 가파르고 험난했다. 우거진 조릿대와 크고 작은 바위가 걸음을 방해했다. 동심바위를 지나 조릿대를 헤치며 나아갈수록 숨은 더욱 차올랐다.

1시간쯤 걸어 형제바위 근처까지 올랐다. 기암괴석 병풍이 펼쳐지고 발아래는 수십 미터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이어졌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밧줄에 의지에 큰 바위틈을 오르자 마당 같이 탁 트인 공간이 나왔다. 그야말로 천연요새였다. 바로 최후 항전지에 다다른 것.

일행은 정성스레 챙겨온 막걸리와 과일로 간단한 제수를 차리고 위령제를 지냈다. 특별히 강순후



지난 4월 24일 오전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운주지회 회원과 지역 주민들이 대둔산 최후 항전지 답사를 위해 산길을 오르고 있다.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운주지회 회원들이 대둔산 최후 항전지에서 위령제를 올린 뒤 대둔산 8부 능선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 최후 항전지 주변에서 바라본 풍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회장은 100년 넘는 감나무에서 수확해 손으로 직접 깎은 꽃감을 가져왔다. 강 지회장은 손바닥 크기의 종이에 적어 온 당시 희생된 25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다. 참석자들은 숨을 삼키며 울컥하는 마음을 감췄다.

짧은 추모의 시간 동안 1894년 임동설환에 농민군들이 3개월 동안 겪었을 고난을 생각했다. 강 지회장은 “올 때마다 의미가 너무 커서 다 담을 수 없는 현장인 것 같다. 당시 농민군이 처절하게 외세에 맞서고 반봉건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오늘을 계기로 후손들이 동학농민혁명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정신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종규 공동대표는 증조부가 동학농민군이었음을 밝힌 뒤 “역사의 현장에서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운주지회 명예회장인 홍성희 운주면장도 “운주면 행정 책임자로서 동학농민군 최후 항전지에 와 보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함께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운주지회는 오는 5월 말 한국게임과학교등학교 학생 및 4H 회원들과의 답사를 계획하고 있다. 지회는 향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정기 추모제와 동학축제 등을 추진해 대둔산 항전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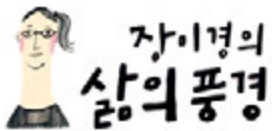


강순후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운주지회장



# 내가 하고 싶은 노동을 천천히 해 나가는 것

정갈하게 정리된 8평 남짓한 목공방 앞에 앉은 노동환 씨



## 화산면 돈의마을 노동환 이야기

노동절을 하루 앞둔 날, 노동환 씨의 목공방에서 그를 만났다. 2025년 11월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이 되었지만, 무심코 튀어나온 익숙함에 그만 “내일 근로자의 날인데 쉬어야죠?”라고 묻고 말았다. 아차 싶은 마음도 잠시, 그는 씨익 웃으며 “노동절이죠.”라고 나지막이 정정해 준다. 사용자를 위해 부지런히 일한다는

수동적인 ‘근로’에서, 사람이 주체가 되어 에너지를 쏟는 능동적인 ‘노동’으로 나의 무딘 인식이 바로 잡히는 순간이었다.

철도 노동자 노동환 씨(1967년생)은 1985년부터 약 40년간 철도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 기관사이자,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기관차지부장을 지내며 은퇴하기 전까지 동료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의 현장에 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작년 6월에 은퇴하고 꿈에도 그리던 바이크 전국일주를 떠날 계획이었지만 잠시 접어두고 그해 가을 고산미소시장에 리사이클링목공공방을 열었다. 철도 기관사로 일하는 와중에도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해 사내 목공동아리도 만들고 동료들의 휴식 공간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딱딱 만들어 내는 사람이었다. 완주 화산면에 살고

있는 친척 동생의 권유로 2017년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난로제작교육을 이수하며 생애 첫 난로를 만들어 그해 겨울 ‘나는 난로다’ 전환기술박람회장에 난로를 출품했다. 그렇게 완주와 연이 닿았고 2020년 무렵 양주에서 화산면으로 덜컥 삶터를 옮기게 되면서 전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출퇴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2025년 6월, 반 평 공간의 기관차 운전실에서 40년간 쉬지 않고 달렸던 그는 이제 땅으로 내려왔다. 요즘도 종종 기차를 운전하는 꿈을 꾸다고 한다.

“기관사들 정년이 58세입니다. 더 하려면 60세까지 할 수도 있는데, 나 40년 일했어요. 징그러워요, 그만 쉬고 싶었어요.”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옛된 기관사가 겪은 첫 파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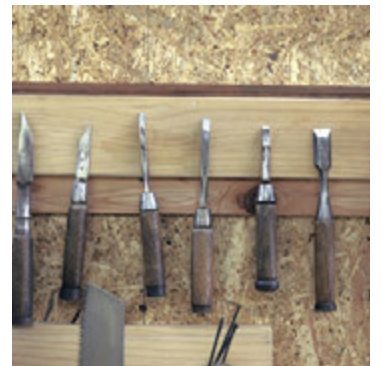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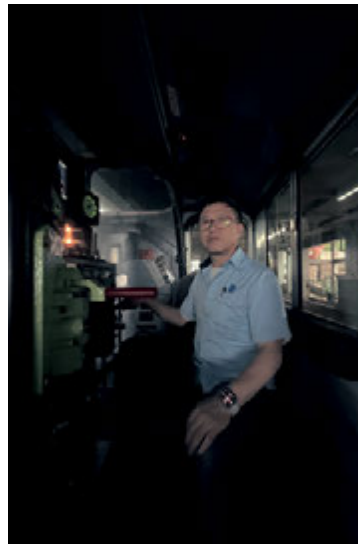
1985년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7월 철도청에 입사해 기관사가 되었다. 2005년 철도청이 폐지되고 공사 체제(현 코레일)로 전환되기 전까지 여유롭게 쉬거나 여행을 가본 기억이 없다. 어린 시절부터 팍팍한 삶이었다.

“지금은 구파발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냈죠. 제가 살 때는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동산리라는 곳이었어요. 완전 시골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화산면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목수였고요.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죠. 어린 시절 생각하면 항상 배고팠죠. 저도 9살 아이인데 3살 아래 동생도 제가 보살펴야 했으니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을 했죠.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였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동생이 중학교를 가면 나는 고등학교 포기해야겠다 생각했는데 학교 교실 뒤에 고등학교 소개하는 책자가 걸려있었는데 철도공고 학비가 무료래요. 선생님에게 이 학교에 원서 넣고 싶다고 했더니, 담임이 여긴 '네 실력으로 안돼'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겼지. 나 여기 못 가면 공장가야된다고 하니까 부모님 모셔 오래요. 아버지 일하시느라 못 오신다고 제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화끈하게 원서를 써주시더라고요. 일 년 동안 미친 듯이 연합고사 준비를 했어요. 결국 철도고등학교 차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철도고에 다니면 무료로 기차를 탈 수 있었는데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어디 한번 놀러 가보지를 못했네요.”

1988년의 여름은 뜨거웠다. 입사 3년 차, 옛된 기관사였던 그에게 '파업'은 생소한 단어였지만, 잠한숨 제대로 못 자고 운전실에 오르던 동료들의 눈을 보며 깨달았다.

파업의 이유는 간단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당시 철도 공무원이었던 기관사들은 한 달 평균 350~400시간에 달하는 노동환경에 처해 있었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시간외 근무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노동환 씨도 선배 기관사들과 함께 그해 7월, 처음으로 운전대를 놓고 광장에 섰다. 당시 어용 노조에 반발하여 철도 기관사들이 주축이 된 이 파업을 통해 훗날 시간 외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 등을 처음으로 받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노동조합이 뭔지도 몰랐는데 고참들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 힘들다 하면서 그것이 파업이 된 거죠. 20대 청년이 바라본 파업은... 형님들이랑 같이 모여있으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맨날 모여서 저녁에 술도 한 잔하고... 그것



기차 앞에 선 노동환 씨와 기관실 내부(사진제공\_노동환)  
언제든 탈릴 준비가 되어있는 그의 바이크, 노동환 씨가 처음 설계제작한 난로(사진제공\_노동환)  
목수였던 아버지가 사용했던 연장들을 노동환 씨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 계기가 되었고 의식화되었던 중고참들이 주도하면서 노동조합을 민주화하는 과정에 함께 했죠.”

그가 일했던 기관차 운전실은 반 평 남짓한 공간이다. 편안한 객실 의자 대신 딱딱한 시트 위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하루를 보냈다. 인체공학적인 배려가 없는 그곳에서 여름의 열기를 이겨낼 도구는 낡은 선풍기뿐이다. 극심한 소음과 진동 속에 노출된 기관사들에게 허리 질환과 난청은 피할 수 없는 직업적 질병이다.

“부산까지 가면 다시 서울로 올라오기까지 3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시간은 영락없이 자야 해요. 열차 운전하면 좋은 풍경 실컷 보면서 좋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앞을 계속 주시해야 하니까. 그리고 기관사가 버튼을 일정하게 누르지 않으면 열차가 비상정차를 해요. 그러니 한 손으로 계속 잡고 있어야 해요. 예전에는 하도 졸리니까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예 사용할 수 없어요. 눈 오면 기차도 브레이크가 잘 안 들거든요. 역을 지나쳐서 설 때도 있는데 퇴행해서 다시 역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은 기관사 개인의 징계로 과태료가 이삼백만 원이에요. 한 달에 두 번 걸리면 오백만 원이 넘어요. 노동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기관사만 질책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노동환 씨는 은퇴를 한 해 남겨 두고 2024년 열차 운전실 내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강력히 반대하며 삭발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인 인력 부족과 노후 설비는 외면한 채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이기 때문이었다.

40년 노동의 시간을 보내며 수차례 거듭했던 삭발 때문일까, 지금의 그의 짧은 머리가 자연스럽다. 정갈하게 정리된 그의 8평 남짓한 목공방은 노란색 벽면의 빛깔 때문인지 들어서면 유난히 따뜻하고 포근하다. 많은 것이 쉽게 버려지는 세상 속에서 낡은 것들을 고쳐 쓰고자 하는 이들은 언제나 이곳을 찾아와도 좋다. 그는 현재 마을 어린이들의 공유 놀이터에 놓일 것들을 설계해 제작하고 있다. 또한 시골살이에 필요한 난로 제작 교육을 위해 땅끝 해남이나 장흥으로 출장을 가기도 한다. 늘 수많은 사람을 태우고 달렸던 길은 끝났다. 새로 시작된 길에서 둘레둘레 헤쳐나가며 천천히 자신의 속도대로 달리는 노동환 씨다.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 2026 단원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 01 꿈의 극단은?

- **교육기간:** 2026. 4. 4.(토)~11. 28.(토) 14:00~16:30
- **교육장소:** 완주가족문화교육원 1층
- **대상:** 초등 1~6학년 30명     • **장르:** 연극
- **함께 만드는 사람들:** 정상식 예술감독, 추미경 연출가, 김빛난 안무가, 최정은 작가, 문경혜 주강사, 변아희 주강사, 김소원 보조강사

꿈의 극단은 아이들이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표현하고, 무대를 완성해 가는 과정 중심의 연극 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연기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야기·연출·무대까지 직접 참여하며 우리만의 공연을 만들어 갑니다. 올해의 주제는 '너, 그리고 관계'입니다. 친구와 가족 뿐 아니라 공간, 자연, 반려동물, 좋아하는 물건까지 아이들의 삶 속 다양한 '관계'를 발견하고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 04 상상하고 표현하라!!

동물 가면을 만들고 각자의 방식으로 동물의 움직임과 소리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같은 가면도 여우, 늑대, 상상 속 동물까지 다양하게 표현되며 아이들만의 상상력이 살아났습니다. 앞으로는 몸짓과 움직임으로 하루를 표현하고, 감정을 나누며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꿈의극단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경험입니다. 앞으로 8개월, 아이들이 만들어갈 이야기와 변화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02 단원들과의 첫 만남

지난 4월 4일, 단원들과 가족,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첫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안'과 '밖' 신호에 맞춰 움직이는 활동 속에서 아이들은 몸으로 표현하는 재미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훌라후프를 함께 통과하는 활동에서는 서로 협력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처음이라 낯설었지만, 가족과 함께한 덕분에 아이들은 한층 더 편안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03 나를 소개하는 이름, 우리가 만든 규칙

친구들이 서로에게 칭찬을 적어주고 그중 마음의 드는 단어로 나만의 명찰을 만들었습니다.

“넌 참 예뻐.”

“넌 참 듣직해.”

“너랑 친해지고 싶어.”

이 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나를 표현하는 작은 이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함께 지켜갈 규칙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약속은 꿈의 극단 '완주'만의 소중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 “봄과 함께 시작합니다” 꿈의무용단 in 완주

글=꿈의 무용단 무용감독 윤혜진, 코디네이터 최가람

2023년부터 시작된 <꿈의무용단 in 완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운영되며 완주만의 어린이 무용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꿈의 무용단 in 완주는 새로운 무용감독과 창작인력과 함께 조금 다른 방식의 움직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업은 완주의 자연과 계절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자신만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정해진 안무를 따라 하기보다 아이들의 감정과 이야기가 춤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규 수업 외에도 다양한 예술가와 함께하는 창작반(여름방학 예정)을 운영해 무용 뿐 아니라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예술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문의\_완주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진흥팀(070-4233-7732)

## 01 선생님 한마디

- ① 올해의 꿈의 무용단의 변화 중 손꼽는 한 가지가 있다면?
- ② 올해의 주제가 완주의 사계인데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계절과 이유는?
- ③ 단원에게 혹은 학부모님께 한마디 하신다면?

①  
야외 수업과 창작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완주만의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무용감독]-윤혜진



②  
자연의 생명력이 가득한 여름을 좋아해요. 아이들의 움직임과 만나 더욱 생생한 장면이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안무가]-임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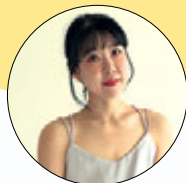
③  
틀려도 괜찮아요! 마음껏 움직여 보세요.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즐겁게 지켜봐 주세요.

[주강사]-임소라



③  
우리가 하는 모든 표현이 정답이에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요.

[주강사]-정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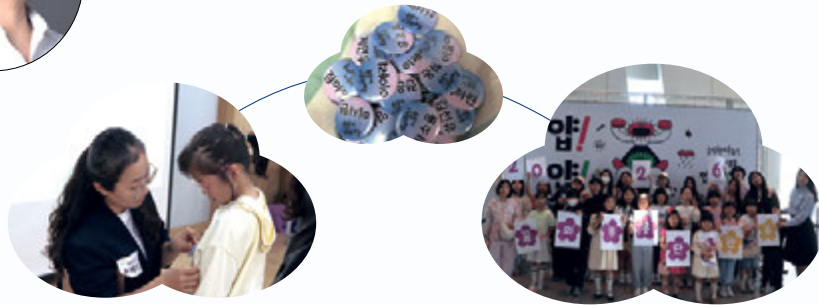
③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기억에 남기를 바랍니다.

[주강사]-정승준



## 02 함께 움직인 어린이날 오픈클래스

어린이날을 맞아 열린 오픈클래스에서는 아이들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 더욱 풍성한 움직임의 시간이 만들어졌어요. 커다란 천을 함께 들고 올리며 협동을 배우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춤을 펼쳤어요.



## 03 동글게 동글게, 숫자에 맞춰 포즈!

친구들과 원을 만들고 숫자에 맞춰 포즈를 만들며 웃음과 에너지가 가득한 순간들을 만들었어요. “위로! 아래로!”, “손발 길게 쭉욱~!” “하트!” “포옹!” “하이파이브!”



## 04 짝과 함께 배우는 힐&토 폴카

짝을 지어 춤을 배우는 시간에는 처음 만난 친구와도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며 몸으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했어요.

- 춤을 잘 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웃는 경험입니다.
- 꿈의 무용단은 아이들의 작은 움직임을 모아 세상과 연결되는 춤으로 만들어갑니다.
- 오는 6월 27일, 완주 둔산공원에서 또 한번의 오픈클래스가 열릴 예정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보세요.

## 심심한 완주 여기로 모이자!



꽃향기와 초록빛이 어우러지는 5월. 완주군 곳곳에서 다양한 소식과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일상에 활력을 더해줄 행사와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살펴보자. 상기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달 완주에서 즐길 거리 여기서 확인해 보자.

###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 12시간 집중 챌린지

미루고 있던 일이나 개인 작업을 함께하는 시간이다. 혼자서는 미뤄두기 쉬운 일들도 방앗간 모임을 통해 같이 시작해보자!

진행정보: 5월 21일 (목) 오후 7시~9시

#### 1고산 A.I. 스터디클럽

AI 활용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스터디 모임이다. 설명만으로 코드를 만드는 '바이브코딩' 실습을 함께하며, 관심 있는 사람은 2기 모집에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5월 28일 (목) 오후 6시 30분~9시

#### 1고산살롱:보드게임 편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게임을 즐기는 시간이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다양한 보드게임을 방앗간 모임을 통해 함께하자!

진행정보: 5월 14, 21, 28일 (매주 목) 오후 7시~9시

#### 1구르는 선, 움직이는 점

구슬과 실 등 다양한 재료로 자유롭게 드로잉하는 시간이다. 우연적인 표현을 통해 부담 없이 창의적인 작업을 경험해보자.

진행정보: 5월 23일 (토) 오후 3시

준비물: 앞치마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김법천국 2층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 월, 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wjyc\_official

참가신청: linktr.ee/wjyc148 ▶ 양식 작성 후 제출

### 삼례 청년문화공간 '완충지대'

#### 1아이패드 드로잉 1편

프로크리에이트 사용법과 라인 드로잉을 배우는 시간이다. 잠들어 있던 아이패드를 깨우고 기초 드로잉을 함께 시작해보자!

진행정보: 5월 16일(토) 오후 2시~5시

신청방법: 정원 마감 까지 \*선착순 접수

#### 1드로잉 2편 캐릭터+굿즈 제작 실습

간단한 캐릭터를 그리고 굿즈 제작까지 이어지는 실습 프로그램이다. 나만의 캐릭터와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보자!

진행정보: 5월 23일(토) 오후 2시~5시

신청방법: 정원 마감 까지 \*선착순 접수

모집인원: 8명

#### 1완충시네마 영화 읽기2편

독립영화 <장손>을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영화 속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자.

진행정보: 5월 21일(목) 오후 7시

신청방법: 정원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모집인원: 8명

#### 1완충 음감회

각자 좋아하는 음악을 소개하고 함께 감상하는 시간이다.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며 취향을 나눠보자.

진행정보: 5월 28일(목) 오후 7시

신청방법: 정원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모집인원: 6명

주소: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82 (신아빌딩 4층)

문의: 070-4113-777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 월, 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wjyc\_official

참가신청: linktr.ee/wjyc148 ▶ 양식 작성 후 제출

### 이서 청년거점공간 '이서나루'

#### 1음악으로 읽는 나만의 취향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나의 음악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익숙한 음악을 새롭게 들여다보며 취향을 정리해보자.

진행정보: 5월 16일(토) 오후 2시~4시

신청방법: 정원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모집인원: 10명

#### 1나의 음악 MBTI

플레이리스트를 바탕으로 음악 취향을 분석해보고 나만의 음악 스타일을 가볍게 진단해보는 시간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5월 30일(토) 오후 2시~4시

신청방법: 정원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모집인원: 10명

#### 1취향 디깅 클럽

'그때 그 플래시 게임'을 주제로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다. 함께 이야기하며 취향을 깊게 파고들어보자.

진행정보: 5월 14일(토)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신청방법: 정원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모집인원: 6명 내외

#### 1모여서 각자 집중

같은 공간에서 각자 자신의 일을 하며 집중력을 높이는 모임이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동기부여를 얻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진행정보: 5월 28일(목) 오후 7시~9시

신청방법: 정원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모집인원: 6명 내외

주소: 완주군 이서면 갈산로 40 콩쥐팍쥐도서관 5층

문의: 063-229-323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 월, 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wjyc\_official

참가신청: linktr.ee/wjyc148 ▶ 양식 작성 후 제출

##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 "가정의 달 5월. 시골극장 콩씨네와 함께"

시골극장 콩씨네 5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해 줄 <저녁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5월 16일(토) 오후 2시	미스 리틀 선샤인	코미디	12세 관람가
5월 23일(토) 오후 2시	토리야 로키타	드라마	15세 관람가
5월 30일(토) 오후 2시	희생	드라마	15세 관람가

#### \* 영화를 깊이 있게 <저녁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5월 26일(화) 오후 7시	안토니아스 라인	드라마	청소년 관람 불가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 2026년 전북청년 취업지원 패키지 참여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2026 전북청년 취업지원패키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으로, 2026년 기준 198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면접비, 면접용 정장 대여비, 증명사진 촬영비, 자격증 응시료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항목을 복수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면접비는 회당 5만 원씩 최대 2회, 정장 대여비는 실비 기준 최대 2회, 사진 촬영비는 2만 원 1회, 자격증 응시료는 회당 5만 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특히 자격증 응시료는 국가기술·전문자격은 물론 한국사와 어학 시험까지 포함돼 취업 준비 전반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내용을 월별로 취합한 뒤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청년사업신청' 메뉴에서 '청년 취업지원패키지 참여자 모집'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새 보금자리 마련



2024년 10월 옛 봉동읍사무소에서 출범한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최근 용진읍 옛 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해 신청사로 이전했다. 공단은 공영마을버스, 공영주차장, 공설장사시설, 고산자연휴양림, 종량제봉투 판매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을 맡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영장 4곳 운영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팀을 신설하고 인원은 110명에서 198명으로 늘었다. 이희수 이사장은 "청사 이전을 계기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완주 관광 콘텐츠 크리에이터 풀 상시모집



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완주 관광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상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며, 솜품 및 영상 제작이 가능한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완주군에서 현장 취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관광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 아이템을 기획·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제작 콘텐츠에 대해서는 소정의 제작비도 지원된다. 완주의 다양한 현장을 직접 담아보고 싶은 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관심 있는 사람은 완주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콘텐츠팀 070-7777-7902으로 하면 된다.



## 2026 복합문화지구 누에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복합문화지구 누에가 직장인을 위한 점심시간 프로그램 '12시의 미술관'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수요일(11:40~13:00) 진행되며, 누에 아트홀과 전시실, 실마리카페 등에서 열린다. 참여자는 큐레이터·작가·도슨트의 해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한 뒤 샌드위치와 커피로 점심을 즐기고 잔디광장에서 가벼운 산책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구성됐다. 모집 인원은 회차별 15명 내외다. 참가비는 1인 11,000원이며 전화 문의 후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70-4207-4530

## 완주 문화를 담은 브랜드 산단 공모전



완주의 문화와 산업을 담은 브랜드 공모전이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BI(로고·심볼)와 캐릭터 2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주제는 자연과 산업,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산업단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연결의 의미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BI 부문은 'Wan-The-Full' 네이밍과 '문화를 여는 완주, 미래를 잇는 산단' 슬로건을 필수로 반영해야 한다. 접수는 5월 12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인 1작품만 응모 가능하다. 결과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은 BI 부문 대상 600만 원, 최우수 200만 원, 우수 100만 원이며, 캐릭터 부문은 대상 300만 원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향후 완주문화산단 홍보물과 굿즈, 시설물 등에 활용된다. 완주의 이야기를 브랜드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회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참여자를 기다리고 있다.

## 전북청년도전지원사업 4기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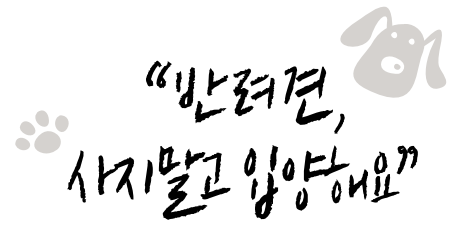
전북청년도전지원사업 4기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체험 프로그램과 구직활동 지원을 제공하고, 참여 기간에 따라 수당도 함께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이다. 참여 기간에 따라 중기(15주) 과정은 최대 220만 원, 단기(5주) 과정은 50만 원의 참여 수당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동안 취업이나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을 비롯해 자립준비청소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이다. 생계형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유관기관 추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접수 후 상담을 통해 참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정원이 마감되면 신청은 종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청년도전지원사업단 063-272-4920으로 문의하면 된다.

## 2026년 완주청년 문화드림 지원사업

완주군이 '2026년 완주청년 문화드림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접수는 5월 1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선정 인원은 250명으로 선정 시 1인당 연 2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와 연계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완주청년문화드림 온라인신청 사이트 wjyouth.ezweel.com 접속 후 신청 및 서류 제출 하면 된다.

## 완주군 대학생 토익·한국사 시험 비 지원

완주군이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토익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심화) 응시료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7만 원까지 실제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험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완주에 주소를 둔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3일 사이에 본 시험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2월 2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매일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063-290-1953 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막이의 가족을 기다립니다

사막이는 보호소에 입소해 장기간 생활하다 안락사를 앞둔 상황에서 구조돼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 체중 약 7kg의 수컷인 사막이는 보호소에서 약 6년을 지낸 장기 보호견으로, 낯선 환경에는 다소 예민한 편이지만 시간을 두고 접근하면 사람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차분한 성향을 보인다. 임시보호와 보호소 복귀를 거친 뒤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사회화 과정을 이어왔으며, 현재는 전주에서 사람과 함께하는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 현재 사막이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꾸준히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다. 입양 문의는 완주군청 농업축산과 063-290-3248로 하면 된다.



마을 소식

### ‘수리수리 집수리봉사단’ 첫 활동 내 손으로 고치는 이웃집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4월 25일 ‘집수리부캐 학교’ 수료생들과 함께 ‘수리수리 집수리봉사단’을 발대하고 첫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단은 경천면의 한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 장판 교체, 건물 외곽 보수, 대문 수리 등을 실시했다. 대상 가구는 완주노인복지센터와 협력해 선정됐다. ‘집수리부캐학교’는 2022년 시작된 완주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현재까지 4기 과정에서 약 8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일부 수료생들은 지역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해 집수리 활동에 참여해 왔다.

이번 봉사단은 수료생들의 자발적 제안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집수리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관계자는 “주민이 습득한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례”라며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 경천면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작업을 마친 수리수리집수리봉사단



수리수리집수리봉사단이 장판 교체, 건물 외곽 보수, 대문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윤대라 #artistDERA #울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멍멍이 견재, 꼬꼬닭 함께 좌충우돌 우당탕탕 완주살이 11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dera/>



# 질문이 있는 이달의 책

선민재 글·그림 | 책읽는곰

아이들은 가끔씩 말한다. 귀신이 너무 무섭다고. 신비아파트와 같은 호러물들을 재미있게 보면서도 무서움을 느끼는 모양이다. 자려고 누우면 천정에서 귀신이 내려올 것 같아요, 학교에 귀신이 사는 게 분명해요, 밤 되면 학교 동상 눈빛이 움직인다고요 등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상상력을 발휘하며 무서워한다. 분위기를 깨는 어른들은 말한다. “살아봐라,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지.”

## 안녕, 외톨이



어느 동네나 한 그루 이상 버드나무가 있었고, 있을 것이다. 버드나무에는 귀신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의 막연한 두려움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많다. 내가 사는 동네에도 크고 너른 버드나무가 있었다. 한여름에 더위를 식히기에 충분할 만큼 그늘이 커서 동네 사람 모두가 한 번쯤 머물고 지나던 곳이지만, 아기를 낳지 못한 부인이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등등 이야기가 많던 곳이기도 하다. 책 속에서도 버드나무는 공포의 대상인 동시에 안전하고 심지어 즐거운 곳이 된다.

버드나무 아래 두 아이가 있다. 한 아이는 폭력과 이를 방관하는 사람들로 인해 '학교'에 가기 싫고, 다른 아이는 왜인지 '집'에 가기 싫다. 두 아이를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친구나 어른은 보이지 않고 폭력과 알 수 없음으로 고립된 상태이다. '학교'에 가기 싫은 아이는 자신에게 폭력적인 아이들일지라도 함께 축구하고 떡볶이 먹고 싶은 마음에 하기 싫은 요구를 받아들여 공포의 대상이던 버드나무를 향하고, 그곳에서 '집'에 가기 싫다는 아이를 만난다. 그리고 버드나무는 두 아이에게 안전한 곳이 된다. 사실 두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은 외로움. 끔찍하고 슬픈 이야기의 현상이었지만 친구, 이웃과 함께 있어 그다지 무섭지 않았던 어린 시절 버드나무 그늘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사는 내내 외롭고 슬플 때도 많지만, 친구들이 있어 어떤 시기를 그럭저럭 넘기기도 한다. 그저 같이 말하고 먹고 놀며 시간을 보낸다. 어지간하면 모두 어울려 동네 그늘이나 평상에서 먹고 마시며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말들을 주고 받다 보면, 시간은 잘도 흘러가 서로를 힘들게 하던 것들도 그제 뭐였더라 정도로 희미해진다. 지금 돌아보니 그 시기를 그저 같이 지나왔다는 것이 어쩌면 매 순간 서로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일이었음을 깨닫는다. 두 아이가 넘어야 할 상황은 한없이 무거워 보이지만 서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잠시 슬픔을 잊고 웃게 되는 것처럼.

이 책은 '학교'에 가기 싫은 아이 상황만을 이야기하고 있어 읽다 보면 '집'에 가기 싫은 아이 상황도 궁금해진다. 후속편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림 속 우산 아래에서 두 아이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저 보통 아이들처럼 무서운 귀신 이야기나 하며 놀았으면 좋겠다. 두 아이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생각을 벌써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감나무책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남봉로 134 ☎ 063-262-3111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 매일 설레

#83 업데이트 완료



이웃모를 겁동여 시은대어업는 코몰에 높은 간질안필과서. 이미 눈가람 코 말은 할았어... 아깝미다 땀땀 부어 있다.



이걸... 자연친화형이라 해야할지...



설레는 제주에서 그림 그리고 디자인한다.

촌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 291-8448

## 운명을 견뎌내는 힘

###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29) 카를 오르프의 [오 운명]



QR을 스캔해보세요.  
음악이 재생됩니다.

카를 오르프의 [오 운명]("O Fortuna")를 듣는 것은 음악감상이라기보다는 어떤 거대한 힘의 앞에서 잠시 서 있게 되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 곡을 영화 예고편이나 스포츠 경기장의 오프닝, 혹은 시대극의 운명적 장면에서 자주 접합니다. 그때마다 이 음악은 "지금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예고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곡이 단지 '웅장한 배경음악'으로만 소비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 운명]의 웅장함은 단순한 음량이나 합창의 규모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 힘의 뿌리는 가사에도 있습니다. 이 음악은 인간을 고양시키기 위해 울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작게 만들기 위해 울립니다. 그리고 그 작아짐 속에서 이상하게도 우리는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오 운명]의 가사는 중세 라틴 시집 『카르미나 부라나(Carmina Burana)』에서 가져왔습니다. 따분한 수도원 문서로 오해될 수도 있지만 이 시집은 엄숙한 신학의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술, 사랑, 풍자, 방탕, 불운, 그리고 인간의 허영까지 다룹니다. 어떤 시는 술집에서 노래하기 딱 좋고, 어떤 시는 성직자를 조롱하며, 어떤 시는 젊은 사랑의 육체성을 노골적으로 그립니다. 말하자면 『카르미나 부라나』는 중세가 남긴 "세속의 성가"입니다. 신을 향한 찬미가 아니라 인간의 운명과 삶을 향한 탄식과 웃음입니다.

오르프는 1930년대, 이 시집을 바탕으로 대규모 칸타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작품의 첫 문과 마지막 문에 같은 곡을 배치합니다. 바로 [오 운명]입니다. 시작이 운명이고 끝도 운명입니다. 이것은 단지 음악적 효과만 노린 것이 아닙니

다. 이런 식의 작품 구조를 통해 "인간은 운명이라는 원환(圓環) 속에서 시작하고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은 달처럼 변하고, 바퀴처럼 돌아가며, 가난과 권력을 얼음처럼 녹여버립니다. 운명은 논리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변한다'는 사실만을 반복할 뿐입니다. 달이 차오르고 기울 듯, 인간의 운도 차오르고 기울입니다. 그 변화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인간에게는 잔인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단단하다고 믿는 두 가지—가난과 권력—조차도 운명의 손에서는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가난이 녹아버리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언제든 다시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권력이 녹아버리면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곧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르프의 음악은 바로 이 내용을 음향으로 구현합니다. [오 운명]에는 달콤한 멜로디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리듬과 반복이 있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 군중이 동시에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노래라기보다 의식에 가깝습니다. 인간이 운명 앞에서 벌이는 집단적 의식. 합창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인류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이 곡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낮춥니다. 그 낮춤이 바로 이 곡의 진짜 힘입니다.

듣는 우리는 운명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힘을 몸으로 겪습니다. [오 운명]은 어떤 교양적 감상보다 먼저, 신체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심장이 조여오며 눈이 커집니다.

이러한 운명을 이기는 방법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서로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르프의 합창이 강력한 이유는 바로 이 메시지를 음악적으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운명을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외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실이 때로는 어떤 위로보다 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오 운명]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곡은, 삶을 지나치게 도식화하는 거짓 위로를 걷어내고 인간이 마침내 받아들여야 할 가장 큰 조건 하나를 정면으로 보여줍니다. 운명은 달처럼 변한다. 운명은 바퀴처럼 돌아간다. 운명은 가난과 권력도 얼음처럼 녹여버린다. 이 사실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것.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운명이 나를 쥐는 순간에도 나 자신을 완전히 잃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비명을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울음과 나의 울음을 같은 합창 속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오 운명]은 차가운 음악이면서도 인간적인 음악입니다. 운명의 바퀴는 오늘도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명에 놀려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 이 곡이 남기는 가장 깊은 교훈이며 가장 오래 가는 울림입니다.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원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마을 소식

#### 도자기 공방 '위시아트랩' 확장 이전

도자기 공방 '위시아트랩(대표 한송지)'이 기존 이서면 행정연수원 맞은편에서 3분 거리 공원 맞은편으로 확장 이전했다.

올해 2월 새로 문을 연 공방은 가마실·교육공간·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수업과 전시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됐다. 특히 교육공간은 20~30명 규모의 단체 교육과 문화행사, 출강형 프

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확장·구성되어 기업·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공간대여 행사 운영은 물론, 추후 로컬 편집숍으로도 확장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 주소\_ 원주군 이서면 반교로 103, 서하빌딩 105호
- 영업시간\_ 10:00~21:00 \*출강 일정 별도 공지
- 문의\_ 0507-1415-5066



# 오동꽃 필 무렵

농/촌/별/곡



차 남 호

어느새 봄날이 가고 있다. 흐드러졌던 봄꽃 잔치는 오래전에 막을 내렸고, 여름을 재촉하는 풀꽃들이 하나둘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꽃이 진 나뭇가지에 돌아난 잎새는 나날이 질푸르러 간다. 그 와중에 이제야 꽃을 매다는 나무도 있다. 아까시 꽃을 떠올리는 이가 많을 것이고, 오동꽃은 아마 낫설 게 틀림없다.

오동잎 한잎 두잎 떨어지는 가을밤은 귀에 익었을 테지만 오동꽃이라니. 모양새는 참깨꽃을 닮았지만 연보랏빛을 띤다. 요 며칠 뒷산 오솔길을 걷노라니 어른 엄지 크기의 오동꽃잎이 흩뿌려져 있다. 그 꽃이 질 때엔 아마도 '후두두둑' 소리가 났으리라. 몇 해 전 산불이 휩쓸고 간 앞산과 뒷산에는 그 사

이 이런저런 나무가 자생하여 쑥쑥 올라왔다. 이 맘때가 되면 그 산허리에 연보랏빛 꽃무리가 점점이 피어나는 것이다. 알고 보니 바로 오동꽃. 그게 오월 초순이니 이때를 나름 '오동꽃 필 무렵'이라 일컫기로 했다.

오동꽃 필 무렵 산야의 수목은 연둣빛에서 한결 질푸름을 더하게 된다. 먼발치로 보이는 산줄기는 다채로운 색감으로 눈이 부시다. 연중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아닐까 싶다. 숲길을 지나노라면 그 넘치는 생명력에 숨이 막히고 수풀이 뿜어내는 풋풋한 향에 머릿속이 아득해진다.

그러니 봄날이 가기 전에 이 봄을 맘껏 누리보자 해서 벗들과 함께 훌쩍 길을 나선다. 아마도 마지막 봄나들이가 되겠지. 익산 미륵산은 야트막한 산이지만 꼭대기에 오르면 드넓은 호남평야가 사방으로 한눈에 들어온다. 드넓은 시계 속에 펼쳐진 지형은 흐릿하게 뭉개져 계절을 종잡을 수 없다. 산허리에 자리한 사자암의 전설과 산자락에 펼쳐진 미륵사터는 이 고장이 백제의 옛터전임을 일러준다.

봄기운은 이국적 풍경을 잘 가꿔놓은 시골 정원에서 물씬 풍긴다. 하늘 끝까지 치솟은 메타세콰이어 숲이 상징하듯 50년의 연륜을 담고 있는 이 정원은 몇 해 전 세상에 공개됐다. 그 인위적 미학이 못내 거슬리지만 바로 거기에 봄이 서려 있으니

어찌란 말인가.

한편 오동꽃 필 무렵이 이처럼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오동꽃 필 무렵이면 벼농사가 시작되는 탓이다. '마지막 봄나들이' 며칠 전, 벼농사 초반공정이라 할 '모농사'에 들어갔다. 범씨를 담가 모판에 넣고, 못자리를 만드는 한 주일 남짓 걸리는 일이다. 이는 늘 그래왔듯 <고산권벼농사두레>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태 전 벼두레 공동경작 면적이 급격히 늘면서 작업인력을 감당기 어려워졌었다. 교육지책으로 내가 짓는 면적을 떼어 지난해부터 고산농협의 '유기농 포트모 대행작업'으로 돌렸더랬다. 덕분에 인력난에 시달리던 벼두레 공동작업에 숨통이 트였고 일련의 작업은 한결 여유 있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다행스런 일이지만 그 결과로 경작체계는 따로 나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해도 나로서는 무척 아쉬운 일이고, 벼두레 또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렇듯 안도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벼두레의 일원이다. 지금껏 그래왔듯 올해도 일련의 공동작업에 함께했다.

오동꽃을 피우는 마음이랄까. 전통사회에서는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었고, 그 딸이 자라 시집갈 나이가 되면 장롱을 짚었다고 한다. 그러니 그 오동나무를 오죽 애지중지 키웠을까. /비봉 염mmas

## 마을 소식

### 노란 리본에 담은 자연보호의 의지

####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창립 6주년 기념 행사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창립 6주년 기념 '모모의 날' 행사가 4월 25일 완주군 신흥계곡 아우르하우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팽수풍물패의 사물놀이와 김상윤의 태평소 연주로 시작됐으며 이어 소중연 5중주의 첼로 연주와 운영진이 함께 부른 '지후의 꿈' 합창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연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노란 리본 달기 순서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신흥계곡의 평화와 자연 보존의 염원을 담아 각

자의 다짐을 리본에 담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 모여 함께 행복합시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회원 70여 명이 참석해 자연 보호의 의지를 다지고 서로를 격려하는 화합의 장으로 이어졌다. 기념식 이후에는 '평화의 밥상'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2020년 출범 이후 신흥계곡 사유화 반대 운동 등 지역의 생태 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앞으로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주민과의 연대와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완주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완주**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윤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이지 www.wandookong.kr
- 취 재 · 글 윤하나, 성다연
- 편 집 장혜영, 이윤영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